

## <소다회>

# 동양화학, 3년간 특별보너스 66.11% 수요산업은 「경쟁력 약화」울썩!

중국산 합성소다회에 대해 향후 3년간 66.11%라는 고율의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로 확정하면서 거의 1년간을 지속해 온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피해판정여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그것도 향후 3년간 (1994~1996년) 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서 여기에 중화하북 진출구공사 및 중국화공건설총사 제품은 이들 기업이 수출물량을 축소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들 제품은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약속한 내용을 보면 이들 두 약속제의 수출자는 소다회의 한국에 대한 수출물량 합계를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1994년 및 1995년에 각각 2만톤, 1996년에는 5000톤이 감소한 1만5000톤이며, 약속제의 수출자가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6규정에 의거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중화하북진출구공사는 64.78%, 중국화공건설총공사는 66.11%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이러한 결정은 12월16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 12월27일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시점에서 적용, 중국산 소다회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표면화되면서 난색을 비추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동양 화학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신청한 93년 1월29일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12월초 66.11% 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기전까지 당사자들 및 수요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국내 소다회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다회의 대규모 수요처인 유리업체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 국가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유리기업 이익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      |      |        |
|-------------------------|------|------|--------|
| 구 분                     | 1990 | 1991 | 1992   |
| 두 산 유 리                 | 75.6 | 18.2 | ▽111.2 |
| 삼 광 유 리                 | 34.9 | 30.3 | 14.2   |
| 태 평 양 종 합 산 업           | 48.2 | 30.5 | ▽40.6  |

자료) 선정

| 한국유리의 주요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                |                |                |
|------------------------------|----------------|----------------|----------------|
| 구 분                          | 90.7.1~91.6.30 | 91.7.1~92.6.30 | 92.7.1~93.6.30 |
| 소 다 회 내 수                    | 166,800.00     | -              | 167,150.92     |
| 수 입                          | 157,628.86     | 161,072.92     | 162,561.21     |
| 탄 산 가 리 수 입                  | 554,864.41     | 553,765.47     | 5,600.00       |
| 망 초 수 입                      | 121,610.61     | 116,835.88     | 85,753.95      |
| B - C 유 내 수                  | 74.72          | 69.80          | 70.87          |
| 경 유 내 수                      | 145.30         | 139.86         | 169.85         |

| 두산유리의 주요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         |         |         |
|------------------------------|---------|---------|---------|
| 구 분                          | 제35기    | 제36기    | 제37기    |
| 소 다 회 국내수입                   | 169,500 | 174,972 | 176,665 |
| 규 사 국내수입                     | 30,000  | 30,965  | 33,340  |

주) 제35기: 1990.7.1~1991.6.30 제36기: 1991.7.1~1992.6.30  
제37기: 1992.7.1~1993.6.30

| 두산유리의 판매실적 (단위 : M/T, 1000본, 1000원) |     |         |             |         |            |
|-------------------------------------|-----|---------|-------------|---------|------------|
| 구 분                                 |     | 1992    |             | 1993(상) |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병                                   | 수 출 | 1,050   | 380,895     | 655     | 231,157    |
|                                     | 내 수 | 288,439 | 85,401,981  | 132,967 | 42,983,011 |
|                                     | 계   | 289,489 | 85,782,876  | 133,622 | 43,214,168 |
| 식 기                                 | 수 출 | 363     | 675,599     | 583     | 582,490    |
|                                     | 내 수 | 15,635  | 21,473,293  | 12,403  | 12,403,875 |
|                                     | 계   | 15,998  | 22,148,892  | 12,986  | 12,986,365 |
| 크리스탈                                | 수 출 | 241     | 2,592,499   | 129     | 1,386,231  |
|                                     | 내 수 | 304     | 4,768,304   | 130     | 2,320,929  |
|                                     | 계   | 545     | 7,360,803   | 259     | 3,707,160  |
| P E T                               | 수 출 | -       | -           | 44      | 9,946      |
|                                     | 내 수 | 114,473 | 16,057,491  | 55,374  | 8,676,619  |
|                                     | 계   | 114,473 | 16,057,491  | 55,418  | 8,686,565  |
| 계                                   | 수 출 | -       | -           | -       | 8,691      |
|                                     | 내 수 | -       | 8,008,369   | -       | 3,142,368  |
|                                     | 계   | -       | 8,008,369   | -       | 3,151,059  |
| 합 계                                 | 수 출 | -       | 3,648,993   | -       | 2,218,515  |
|                                     | 내 수 | -       | 135,709,438 | -       | 69,526,802 |
|                                     | 계   | -       | 139,358,431 | -       | 71,745,317 |

이는 제소자인 동양화학의 의도대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국내 소다회 시장내에서 동양화학 입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동양화학은 따라서 중국 및 ANSAC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때로는 가격담합만이 자기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94년 하반기경에는 동양화학이 경영수익성 상생을 위해 임금상승 및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들먹여 가격인상을 시도할지도 모르는 일이며, ANSAC은 두산상사와 접촉을 통해 수입물량 증가를 요구, 가격인상을 또한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수요처인 유리업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재의 사정상 비싼 값을 치르면서 국산이나 ANSAC 및 기타 수입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업계의 수익성하락은 불을 보듯 흰한일 아니냐하는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동양화학 및 ANSAC산 소다회가 국내 시장을 장악, 또다시 흥역을 치르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국내 소다회 시장 현황 |           |      |         | (단위 : M/T, 100만원) |         |         |
|--------------|-----------|------|---------|-------------------|---------|---------|
| 구 분          |           | 1990 | 1991    | 1992              | 1993(상) |         |
| 총수요(A)       |           | 물량   | 545,661 | 585,768           | 644,622 | 326,297 |
|              |           | 금액   | 78,346  | 88,453            | 101,086 | 49,674  |
| 공            | 국산<br>(B) | 물량   | 325,816 | 349,083           | 330,707 | 152,361 |
|              |           | 금액   | 53,054  | 56,984            | 57,554  | 25,474  |
| 급            | 수입<br>(B) | 물량   | 219,845 | 236,685           | 313,915 | 173,937 |
|              |           | 금액   | 25,292  | 31,469            | 43,532  | 24,200  |
| 시장점유율(B/A)   |           | 59.7 | 59.6    | 51.3              | 46.7    |         |

| 국내 소다회 생산 및 수입현황 (단위 : M/T) |       |         |         |         |         |
|-----------------------------|-------|---------|---------|---------|---------|
| 구 분                         |       | 1990    | 1991    | 1992    | 1993(상) |
| 생 산                         | 생산능력  | 400,000 | 400,000 | 400,000 | 200,000 |
|                             | 생 산   | 334,700 | 344,800 | 330,850 | 146,243 |
|                             | 판 매   | 325,816 | 349,083 | 330,707 | 152,361 |
|                             | (가동률) | (84%)   | (86%)   | (83%)   | (73.1%) |
| 수 입                         | 덤핑수입  | 1,226   | 4,417   | 27,568  | 38,536  |
|                             | 기타수입  | 218,619 | 232,268 | 286,347 | 135,401 |
|                             | 계     | 219,845 | 236,685 | 313,915 | 173,937 |
|                             | (점유율) | (40.3%) | (40.4%) | (48.7%) | (53.3%) |

주) 덤핑수입국은 중국이며, 기타 수입국은 미국·일본·독일임

| 중국의 소다회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1000M/T, %) |       |       |       |      |         |
|-------------------------------------|-------|-------|-------|------|---------|
| 구 분                                 |       | 1990  | 1991  |      | 1992    |
|                                     |       | 수 량   | 수 량   | 증가율  | 수 량     |
| 생 산 능 력                             |       | 4,850 | 5,030 | 55.7 | 5,460   |
| 생 산 실 적                             |       | 3,746 | 3,885 | 3.7  | 4,506   |
| 가 동 률                               |       | 77.2  | 77.2  | -    | 82.5    |
| 수출 실적                               | 인도네시아 | 11    | 37    | 2.4배 | -       |
|                                     | 일 본   | 10    | 33    | 2.3배 | -       |
|                                     | 홍 콩   | 19    | 23    | 21.1 | -       |
|                                     | 방글라데쉬 | 13    | 16    | 23.1 | -       |
|                                     | 한 국   | 6     | 16    | 1.7배 | -       |
|                                     | 전 체   | 87    | 198   | 1.3배 | 350(추정) |

- 자료) 1. KOREA 제철자료(중국해관 통계인용)  
 2. 동양화학자료(ISONEX. INC., Harriman Chemsult Ltd. 인용)  
 3. 중국정부관계자(화공부)확인

국내 소다회 시장이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자유화 조치의 하나로 93년내에 덤핑방지법규를 제정할 것이라고 중국관영영자지 데일리가 발행하는 주말판 비즈니스 위클리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은 불공정 경쟁을 막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법을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해 놓고 있으며, 이 법안은 덤핑방지법규와 함께 곧 전인대를 통과할 것이라고 국가경제무역위의 王殷國 조약법률국장이 전망했다.

王국장은 중국의 무역제도는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 들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덤핑 제제를 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만일 어떤 나라가 덤핑에 관련된 중국 회사를 적발하면 그 회사만 처벌해야지 모든 중국 상품 에 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 법률이 시행되면 무역은 환율이나 관세·신용·대부 등 경제적인 수단으로 주로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법은 일부 생활용품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수출물량을 배제하지 않고 공매나 입찰로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王국장은 전했다.

이 보도를 보고 우리는 이제 중국

이 앞서서만 국제 무대에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이상의 피해는 싫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중 국교 정상화 및 중국 대외 개방정책의 흐름을 따라 양국의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는 좋은 상태이다.

한편, 92년 수출 44억달러 및 수입 36억달러로 약 8억달러의 무역흑자 및 공급과잉 이 심화되고 있는 화학산업의 어려움을 대 중국 수출시장의 적극적 침투로 타개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자국제품 수입확대 요구를 무작정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중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의 상호 무역량 확대는 필수적으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 한국은 구조적 공급부족으로 일정 부분을 해외 공급선에 의존해야 하는 소다회는 원가 경쟁력 및 안정공급 능력을 가진 중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리한 공급선을 개발, 저렴한 원료 를 조달해야 하는 상태이다.

중국은 제7차 5개년 경제계획(1986~1990년)의 중점 추진항목인 산알카리 산업의 집 중적 인 투자를 통해 88년 260만톤에서 92년 450만톤으로 생산량을 늘려 약 30만톤의 수출여력을 보유, 미국과 비슷한 원가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Weifang Soda ash Plant는 우수한 품질 및 공장주변의 원료(염전 연산 450만톤, 석회석 100억㎥) 확보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은 현재 유럽 화학산업협회가 미국산 소다회를 덤핑혐의로 제소해 천연소

| 미국의 소다회 수출현황 |         |            |        | (단위 : M/T, 달러 ) |            |        |  |
|--------------|---------|------------|--------|-----------------|------------|--------|--|
| 구 분          | 1992    |            |        | 1993(1~4월)      |            |        |  |
|              | 수 량     | 금 액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단 가    |  |
| 타 이          | 148,624 | 21,227,000 | 142.82 | 17,783          | 2,342,000  | 131.70 |  |
| 말 레 이 지 아    | 39,815  | 5,800,000  | 145.67 | 12,739          | 1,766,000  | 138.63 |  |
| 싱 가 폴        | 5,960   | 787,000    | 132.05 | 2,979           | 387,000    | 129.91 |  |
| 인 도 네 시 아    | 220,397 | 31,511,000 | 142.97 | 98,772          | 13,303,000 | 134.68 |  |
| 필 리 핀        | 114,105 | 16,912,000 | 148.21 | 21,701          | 3,023,000  | 139.30 |  |
| 중 국          | 64,258  | 8,789,000  | 136.78 | 10,400          | 1,412,000  | 135.77 |  |
| 한 국          | 252,322 | 39,368,000 | 156.02 | 98,418          | 14,716,000 | 149.53 |  |
| 대 만          | 128,118 | 18,380,000 | 143.46 | 38,048          | 5,217,000  | 137.12 |  |
| 일 본          | 262,412 | 36,491,000 | 139.06 | 80,925          | 12,060,000 | 149.03 |  |

자료) 선정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       |          |          |
|-------------|---------------|-------|----------|----------|
| 구 분         | 단 위           | 1992  | 1993(추정) | 1994(전망) |
| G D P 성 장 륜 | %             | 12.8  | 12.0     | 8.2      |
| 물 가 상 승 륜   | %             | 5.4   | 10.0     | 8.1      |
| 우 대 금 리     | %             | 10.74 | -        | -        |
| 환 율         | 元/\$          | 6.7   | 8.7      | 9.0      |
| 수 출         | US\$ 10억, 증가율 | 85.0  | 7.4%     | 11.5%    |
| 수 입         | US\$ 10억, 증가율 | 80.6  | 19.8%    | 13.0%    |
| 무 역 수 지     | US\$ 10억, 증가율 | 4.4   | ▽270.0%  | 50.0%    |
| 경 상 수 지     | GDP 비중(%)     | 2.5   | 0.2      | ▽0.2     |
| 외 환 보 유 고   | US\$ 10억      | 19.4  | 18.8     | -        |
| 외 채         | US\$ 10억      | 69.3  | 79.0     | -        |

자료 : State Statistical Bureau, Nomura Research Institute

| 덤핑조사경위     |                                     |
|------------|-------------------------------------|
| 1993. 1.29 | 동양화학,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             |
| 1993. 3. 6 | 조사개시                                |
| 1993. 6.21 |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조사된 잠정덤핑률 수준)            |
|            | ◦ 중화화학진출구공사 : 68.01%, ◦ 기타 : 70.86% |
| 1993. 9. 5 | 관세청, 확정덤핑률산정                        |
|            | ◦ 중화화학진출구공사 : 64.78% ◦ 기타 : 66.11%  |
| 1993.11.17 | 무역위원회, 산업피해판정                       |
| 1993.12.초  | 중화화학진출구공사 및 중국화학건설총공사의 수출물량 축소제의 수락 |

다회라는 이유로 미국산을 제소대상에서 제외시킨 우리나라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GATT PANEL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결이 났으니, 이제 국제경쟁력 회복과 공급선 개발, 저렴한 원료를 쉽게 공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유리업계의 원가부담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수익성 악화가 곧 국제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국가적으로 이득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수요처

한국유리는 두산상사의 양해로 ANSAC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두산상사가 ANSAC의 국내 총대리점 계약이 이뤄지기 88년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고 수요량이 한국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ANSAC이 두산상사에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매현황을 보면 판유리가 7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유리가 10.93%, 유리섬유가 8.25%, 기타가 3.40%를 보이고 있다. 원재료의 재고자산은 93년 6월말 현재 규사가 98만8000원, 석회석이 9만3117원, 소다회는 185만9339원, 망초는 6만9240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다회 등 동양화학과의 지급어음은 41만7367원을 보이고 있다.

또 두산유리는 93년 10월말 현재 미국산 천연소다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88년 7월까지 지는 동양화학 산 소다회를 3만톤 정도 사용했다. 88년 8월부터는 두산상사가 AN-SAC과 대리점이 계약되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해 ANSAC산을 70%정도, 나머지 30%는 동양화학 제품을 소비했다. 91년부터는 ANSAC산을 5만1000톤 전량 사용했으며, 92년에는 4만7000톤을 소비했다.

93년 1월부터 2월까지의 AN SAC 제품을 6800톤을 사용했으나 3월부터 2개월간은 중국산으로 돌아서서 6000톤 가량을 전량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양화학의 소다회 수출량 및 가격추이 |            |           |        | (단위 : M/T,달러) |           |        |  |
|----------------------|------------|-----------|--------|---------------|-----------|--------|--|
| 구 분                  | 1992       |           |        | 1993(1~5)     |           |        |  |
|                      | 수 량        | 금 액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단 가    |  |
| 타 이                  | 9,910,000  | 1,463,000 | 147.63 | 5,028,000     | 648,000   | 128.88 |  |
| 쿠 웨 이 트              | 4,000,000  | 541,000   | 135.25 | 3,500,000     | 454,000   | 129.71 |  |
| 홍 콩                  | 2,115,355  | 220,000   | 155.96 | 1,877,500     | 256,000   | 136.35 |  |
| 필 리 핀                | 3,393,780  | 508,000   | 149.69 | 1,798,500     | 255,000   | 141.78 |  |
| 방 글 라 데 시            | 700,750    | 89,000    | 127.03 | 1,400,000     | 184,000   | 131.43 |  |
| 싱 가 폴                | 2,158,000  | 300,000   | 139.02 | 914,500       | 118,000   | 129.03 |  |
| 사 우 디 아 라 비 아        | 570,500    | 92,000    | 161.26 | 400,000       | 69,000    | 172.50 |  |
| 도 미 니 카              | 163,500    | 51,000    | 311.93 | 175,000       | 45,000    | 257.14 |  |
| 말 레 이 지 아            | 52,540     | 7,000     | 133.23 | 120,020       | 15,000    | 124.98 |  |
| 뉴 질 랜 드              | 18,000     | 3,000     | 166.67 | 73,600        | 11,000    | 149.46 |  |
| 모 리 셔 스              | 17,500     | 2,000     | 114.29 | 35,000        | 6,000     | 171.43 |  |
| A U S                | 120,040    | 23,000    | 191.60 | 20,000        | 3,000     | 150.00 |  |
| 바 레 인                | 0,000      | 0         | 0.00   | 17,500        | 1,000     | 57.14  |  |
| 인 도 네 시 아            | 233,000    | 32,000    | 137.34 | 0,000         | 0         | 0.00   |  |
| 스 리 랑 카              | 14,000     | 2,000     | 142.86 | 0,000         | 0         | 0.00   |  |
| 피 지                  | 20,000     | 3,000     | 150.00 | 0,000         | 0         | 0.00   |  |
| 기 타                  | 622,356    | 156,000   | NA     | 0,000         | 0         | 0.00   |  |
| 합 계                  | 24,109,921 | 3,602,000 | -      | 15,359,620    | 2,065,000 | -      |  |

이는 선경과 함께 시장조사 결과 중국산 합성 소 다 회 가 DELIVERY상 문제가 없었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산 소다회를 사용하다 그룹내 반대를 극복하고 중국산을 사용한 것은 국내 소다회 가격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5월부터 다시 ANSAC 제품으로 돌아섰는데 소비량은 현재까지 2만톤 정도이다. 이처럼 두산유리가 중국산

을 사용하다 ANSAC으로 돌아선 것은 중국산 합성소다회가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동양화학이 의해 제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산유리는 중국산 합성소다회에 대한 최종판결이 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부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중국산 소다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산 소다회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가부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감수하면서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산유리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최종판결 후 장기 수급전망을 검토 중국산 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싼 미국산 소다회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으며, 이에따라 수출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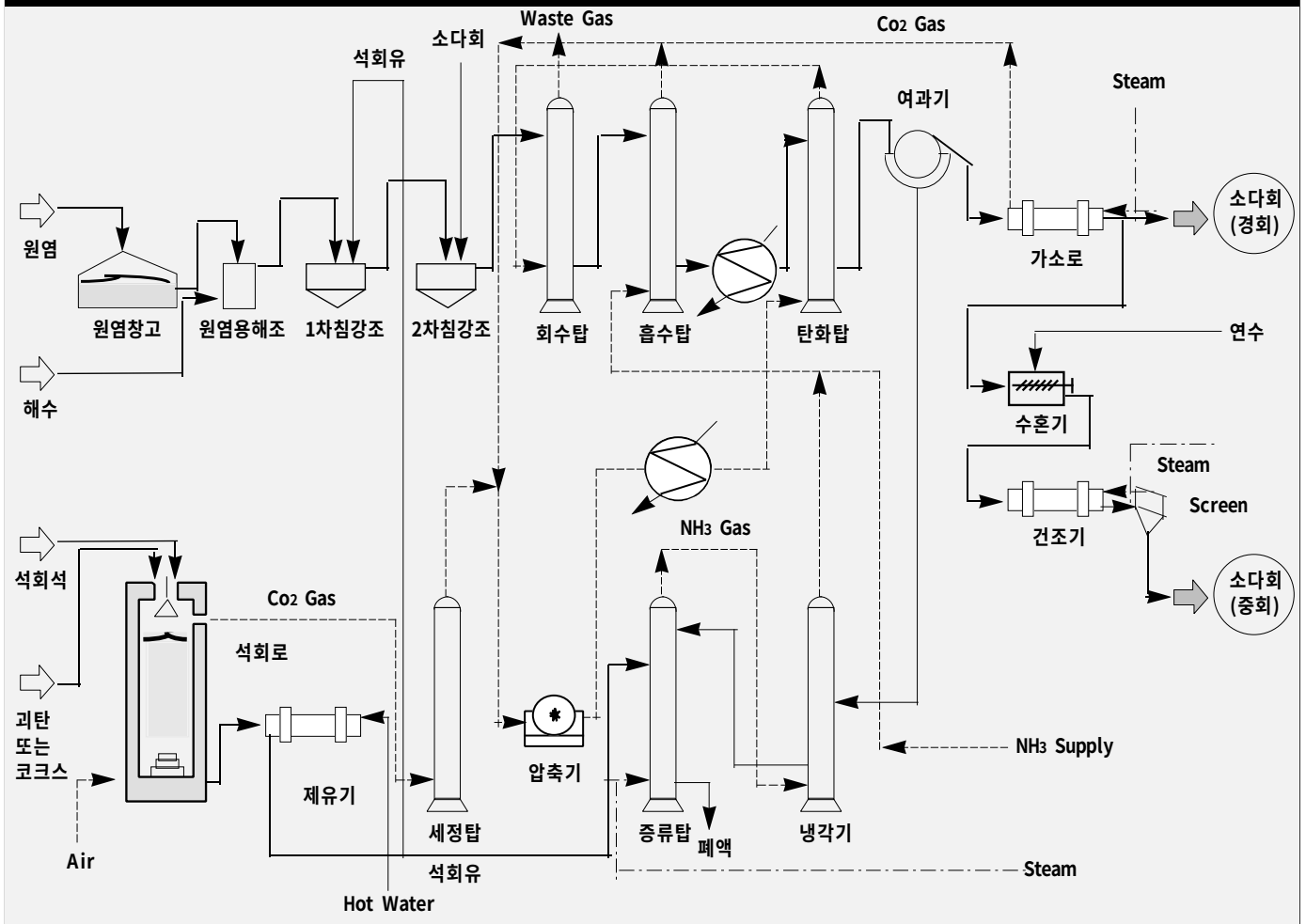
매출현황을 보면 91년 21.2%, 92년 15.9%의 안정적인 판매신장률을 기록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식품, 제약, 음료 등 관련업계의 신병수요 감소와 동종업계의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93년 상반기 매출은 92년 동기대비 9.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리 원료로 사용되는 소다회를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서 매출은 더욱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산유리는 1956년 창립 이래 유리용기 산업을 선도해 온 포장용기 제조기업으로 병유리가 판매고 비율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PET가 12.1%, 식기가 18.1% 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일제당은 현재 두산상사로부터 ANSAC제품, 삼성물산으로부터 Solvay산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92년에는 3000톤을 소비했으며, 93년에는 4000톤, 94년에는 4800톤이 예상되고 있다.

애경산업은 ANSAC, 동양화학, 중국산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량을 보면 90년 4900톤, 91년 5400톤, 92년 6400톤이었으며, 93년 5200톤, 94년 5500톤이 전망되고 있으나 중국산은 동양화학 등의 물량으로 대체가 예상되고 있다.

## 소다회 공정도



## 소다회 시장

국내 소다회의 주 수요처인 판유리업종은 88년 이후 건축경기 활황과 함께 수요가 증가해 오다 중 국산 저가 판유리의 수입 등 건축용 판유리 수입 증가로 소다회 수요가 둔화됐다. 지난 92년 상반기에는 각종 건축규제 등으로 수요가 정체상태에 있으며, 판유리 수입에 대한 조정관세가 부과된 하반기부터 업계 가동률이 약간 상승해 91년대 비 1.2% 증가한 17만2000톤을 보였다.

한편, 93년에는 기업의 정상가동에도 불구하고 고급 칼라유리 수요에 맞춰 기업의 칼라유리 생산일수가 늘어나 소다회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못한 가운데 병유리용 수요는 지난 88년 올림픽경기와 함께 건강음료 및 탄산음료 등을 시작으로 소비가 절정에 달해 기업들은 병유리 공장 신증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비자 기호변화와 91년말부터 경기가 위축, 소다회 수요가 감소했고 주류 및 음료 수요도 크게 둔화되어 병유리기업의 설비과잉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에따라 기업의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PET용기의 수요가 증가해 병유리 수요증가율이 위축, 91년 11만5000톤, 92년에는 3.5%증가에 그친 11만9000톤으로 집계돼 21.0%의 구성비를 보였다.

93년 국내 판유리 수요는 각종 건축규제 완화 및 대규모 주택건설 등으로 92년대비 10%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 국내 생산시설의 순조로운 가동과 재고물량 이월등으로 수급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수요자측에서는 10%정도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수부문은 92년 2052만상자 규모를 보였고 93년에는 2260만상자로 92년대비 10%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각종 건축규제완화와 대규모 주택, EXPO관련 건축물의 마무리공사에 따른 창호용 판유리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92년 815만상자를 보였는데 93년에는 10% 증가한 2000만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3월부터 한국유리 부산공장 재가동과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노력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은 92년 36만8000상자였으나 93년에는 25만상자 규모로 3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내수 우선공급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은 92년대비 3.6% 증가한 200만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 판유리 생산기업들의 시설확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투자부문도 적극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리와 금강이 향후 국내 수요 신장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확충을 추진, 모두 1000억원을 들여 연산 350만상자 규모의 생산시설을 부산 및 여주공장내에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유리병 수요정체로 자동제병업체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93년 상반기 자동제병업체의 유리병 판매가 92년 동기대비 10.6% 감소한 34만2446톤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량은 92년대비 무려 148.4% 증가한 16만5261톤으로 자동제병업체들은 유리병의 수급조절 및 가격출혈 경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액은 92년 동기대비 3.2% 감소한 1241억9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유리병의 수요부진에 따른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주류 및 청량음료 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울돌머 일화, 삼광, 두산, 태평양 등이 모두 일산 550톤 규모의 생산능력의 용해로를 식혔으며, 기타 업체 들은 감량생산을 통한 공급조절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3년 상반기 유리병생산 및 판매현황을 종류별로 보면 주류병을 11만4539톤이 생산, 10만1615톤이 판매됐는데 이는 92년 동기대비 13.3% 감소했으며, 청량음료병은 1만8412톤이 생산돼 47.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또 화장품은 6812톤 생산, 5218톤이 판매돼 15.2%, 약병은 4만5412톤이 생산, 4만3184톤을 판매로 42.7%, 농약병 생산 1만3074톤, 판매 1만3080톤으로 26.7%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양잡주병, 건강, 영양음료병, 식품, 조미료병 등은 각각 2만6675톤, 10만3012톤, 3만6003톤으로 45.4%, 46.8%, 12.6%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기타부문 병류는 7282톤이 판매돼 176.5%의 증가를 나타냈다.

두산은 93년 상반기 현재 13만9050톤을 판매해 40.6%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며, 금비가 4만1789톤으로 12.2%를 차지했다. 또 삼광은 3만5096톤을 판매해 10.3%의 시장을 점유했으며, 동아가 2만2210톤으로 6.5%를 보였다.

화학용수요는 규산소다 등 소다회 유도제품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1년대비 7.0%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폐수 및 기업의 제조공정용 중화제 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91년 8만8000톤 규모였던 것이 92년에는 20.5% 증가한 10만6000톤으로 집계돼 소다회 전체 수요량 가운데 18.7%의 비중을 차지했다.

93년에도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이미지제고로 폐수 및 제조공정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6.9% 늘어난 12만4000톤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비누·세제 및 섬유·피혁용 수요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 92년 수요는 각각 2만톤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국내 소다회 수요는 9.0%에 약간 못미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거의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큰 폭의 수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NSAC이 93년 1~4월까지 동남아 시장에 수출한 소다회는 타이에 1만7783톤 (234만2000달러), 말레이시아에 1만2739톤(176만6000달러), 싱가포르에 2979톤(38만7000달러), 인도네시아 9만8772톤(1330만3000달러)이었다. 또 필리핀에 2만1701톤(302만3000달러), 중국 1만4000톤(141만2000달러), 대만 3만8048톤(521만7000달러), 일본 8만925톤(1206만달러), 한국은 9만8418톤(1471만6000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3년 1~4월에 ANSAC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소다회 가격을 보면 미국 세관 통계 기준으로 대만에는 톤당 137.12달러, 타이 131.70달러, 인도네시아 134.68달러, 필리핀 139.30달러, 일본은 149.03달러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에는 149.53달러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수입물량이 기타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간의 경쟁력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중국산 소다회가 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서 이제 국내 소다회 시장은 경쟁이 제한된 상태로 ANSAC은 가격인상을 요구, 국내 소다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는 동양화학의 내조 또한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ANSAC제품의 한국 수입가격은 국산 내수 판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ANSAC이 대만 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가격은 톤당 약 12.41달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현재 세계 소다회 생산량의 약 27%(약 800만톤)을 점유하고 있고, 세계 국가간 물동량의 약 60%를 ANSAC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수출가격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산 천연소다회는 현재 ANSAC으로부터 국내 총대리점인 두산상사가 수입하고 있는데 92년 기준 22만톤 가량을 들여왔다. 이 가운데 한국유리가 10만톤 가량을 소비했는데 이는 ANSAC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소다회 수출을 담당하는 ANSAC은 FMC, General Chemical, NACC(구 Kerr-McGee), Stauffer, Tenneco 및 Texasgulf사로 이루어진 미국산 소다회 수출창구로 아시아, 중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통관기준 수출현황을 보면 92년에 타이에 14만8624톤을 수출 2122만7000달러를 보였으며, 말레이시아가 3만9815톤으로 580만달러를 나타냈다.

또한 싱가폴은 5960톤(78만7000달러), 인도네시아 2만397톤(3151만1000달러), 필리핀 11만4105톤(1691만2000달러), 중국 6만4258톤(878만9000달러), 한국 25만2322톤 (3936만8000달러), 대만 12만8118톤(1838만톤), 일본 26만2412톤(3649만1000달러)으로 나타났다.

ANSAC은 미국산 소다회 대외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로 경쟁이 격화되는 시장에서의 가격은 대폭 인하하고, 경쟁이 제한된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등의 가격 전략을 구사해 세계 소다회 시장의 완전지배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산 소다회 수입량은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91년에는 22만8190톤으로 90

년대비 4.9%, 92년에는 28만4866톤으로 24.8% 증가했으나, 93년 1~5 월에는 10만4571톤이 수입되어 92년 동기대비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산 소다회 수입가격은 90년 톤당 162달러에서 91년 181달러로 상승했으나, 92년에는 179달러로, 93년부터는 166달러로 하락했다.

전세계 소다회 생산능력은 연간 3700만톤 정도이며 지역별로는 미국이 1000만톤, 동 유럽(소련포함)1000만톤, 서유럽 750만톤, 중국이 500만톤, 서아시아 150만톤, 동아시아 150만톤, 기타 150만톤 정도이다.

국가별로 소다회의 자국내 유통가격은 공장상차도 기준으로 톤당 미국의 천연소다회가 102~105달러, 합성소다회인 서유럽이 200~280달러, 일본은 300~330달러, 대만은 260~290달러, 한국은 210~220달러 정도이다.

국내 소다회 전체 수입량은 92년 31만 3915톤, 93년 1~5월 14만3176톤으로 92년 동기대비 4.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산 소다회의 93년(1~5월) 수입량은 92년 동기대비 2만4395톤 감소했다. 미국산 소다회는 과다 물류비용으로 주로 부두에 위치한 대량 수요처(한국유리, 금강 및 두산유리 등)에서 이를 고정적으로 수입·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산 소다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미국산 소다회의 대량 수요자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으로 수입선을 전환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산 천연소다회의 수입량이 92년대비 다소 주춤세를 보이고 있더라도 국산제품 가격이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산 소다회 수입가격은 91년 톤당 181달러였던 것이 92년 179달러, 93년 177달러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율(66.11%)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미국산 소다회는 다소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이러한 가격추이는 국산제품 판매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산을 수입했던 쌍용은 현재 루마니아산 및 폴란드산 소다회 수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달재상사는 소련산(경회) 소다회를 선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SOLVAY산 소다회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93년 2만7000톤( 이 가운데 경회가 4000톤 정도) 수준을 수입, 고려아연에 8000톤, 협성공업소다에 6000톤, 제일제당에 2000톤 정도를 판매한 가운데 향후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이 주춤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소다회 시장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및 국익을 위해서라도 수입가격이 싼 소다회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실수요자의 보호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 소다회의 국내 생산부족분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공급원의 개발과 수입시장의 경쟁 촉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덤핑판정 절차

동양화학은 중국산 소다회가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고 그 수입량이 92년이후 급속히 증가해 국내 산업의 생산저하로 인한 가동률 및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우려가 있어 관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93년 1월29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동양화학이 중국산 소다회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중국산 소다회 수입가격이 지난 90년 톤당 171 달러였던 것이 91년에는 170달러, 92년에는 157달러, 93년 1/4분기에는 156달러를 기록, 이에따라 동양화학 제품이 톤당 17만4000원, 중국산이 통관비 및 기타 유통마진을 포함해 16만원에 판매됐다는 것이다.

또 동양화학은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국내 전체수요는 매년 증가해 판매량도 91년까지는 연평균 3~6% 신장했으나 92년에는 평균 신장률 3% 감안시 판매 감소량이 2만5000톤에 이르러 매출손실이 약 4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었다.

특히, 장치산업의 특성상 변동비 부분을 제외한 고정비 부분이 40%임을 가정할 경우 매출액 손실 43억원 기준 약 17억원 정도 수익이 감소, 93년 1월1일부터 가격을 평균 4% 인하함에 따라 수익성 감소액 19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93년 1월15일 기업별로 톤당 2000~7000원 정도 가격을 인하했으나 중국산 소다회와는 여전히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93년에는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포함해 65억원 이상의 경상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정상조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내 소다회공장의 정상조업이 불가능할 때 연 50만톤에 달하는 석회석을 공급하는 중소 석회석 기업들의 도산은 물론 소다회 연관산업인 염화칼슘, 중조의 생산도 불가능해 총수입 및 수출감소에 따른 연간 비용은 6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중·장기적으로 소다회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수요와 공급 불안정으로 가격상승을 초래해 수요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등의 제시내용이다.

이처럼 동양화학의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제소를 접수한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개시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세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제소자격, 신청서에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 사실등에 관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덤핑률 및 산업피해사실 등의 경미함 여부 및 관계기관(관세청·상공자원부)의 의견등을 검토, 3월6일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92년까지 미국산 소다회 수입은 증가했으나 가격과 품질은 국산제품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유통과정상 차이로 미국산은 국산품과 시장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3년들어 미국산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산 수입제품이 국산 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제품의 시장도 잠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했다.

피해신청인측인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는 동양화학 주장에 대해 국내 산업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 중국은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동양화학이 공급한 물량은 현상유지에 머물렀으며, 신규 창출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은 수입품으로 충족된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90년부터 92년까지의 소다회 총 수입물량중 중국산 소다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0.5%, 91년 1.8%, 92년 8.7%에 불과했던 것으로 만약 이 기간중 수입품의 공급증가로 동양화학 공급이 신장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총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소다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이제막 소다회 시장에 참여한 중국산 소다회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동양화학이 제시한 생산·출하·재고·고용 및 수익부문 등에 대해 93년 생산감소는 국내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동양화학은 92년2월부터 5개월간 소다회 3만5000톤을 미국산을 한불화학 등 관련사를 통해 수입한 사실을 강조했다.

여기에 판매가격에 있어 중국산 소다회의 영향이 있었다면 92년 가격상승은 어려웠을텐데 동양화학이 가격을 인상한 것은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을 개입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93년들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유리기업 등의 국내 수요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으로 화학산업 공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양화학이 미국산 소다회를 덤핑제소에서 제외한 것은 93년 6월1일 CEFIC(유럽화학산업협회)가 미국산 소다회가 덤핑제소된 것에 비추어 미국산 천연소다회 역시 덤핑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소다회 수입과 국내산업 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미국산 소다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역위원회는 6월21일에 잠정덤핑방지관세(68.01~70.86%)를 부과했는데 그동안 중국산 소다회 수출 13개소 및 제조기업 6개소, 국내 수입 50개소에 대해 덤핑조사를 위한 질문 및 답변절차,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회를 거친 결과 이 제품이 중국내에서 보다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또 비시장경제 국가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 국내에서의 판매가격은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교 국가를 선정해 당해 비교국가에서 생산·판매되는 가격과 비교해 덤핑여부와 덤핑률을 산정하는 GATT 협약 부속서 I의 제6조제2항 등 GATT 덤핑방지관세협약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5일에는 관세청이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확정덤핑률 64.78~66.11%라는 고율의 덤핑률을 산정했는데 중화화학진출공사는 64.78%, 기타 수출자는 66.11%였다. 또 11월17일에는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산업피해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관세청의 덤핑마진율 최종판정(64.78~66.11%)의 범위내에서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판정을 통해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소다회산업이 생산, 가동률, 판매, 시장점유율 등의 감소추세에 따라 경영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중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소다회 가격의 하락을 선도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왜곡돼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면 동양화학이 주장한 수익부문에서 매출이익률이 91년 19.5%에서 92년에 16.8%로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판매관리비 증대로 92년에 32.4%로 감소해 영업이익률이 92년에 5.8%로 하락, 경상이익률은 영업비용 증대로 92년에 0.9%로 하락, 소다회 판매가 93년 1~5월까지 92년 동기대비 18.7% 감소, 고용인력 연평균 5.0% 감소, 시장점유율이 낮아진 부분 등에 대한 것들이다.

동양화학이 주장하는 매출이익률이 91년 19.5%, 92년 16.8%로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90년 13.5%, 91년 8.7%, 92년 5.8% 또 경상이익률이 90년 9.9%, 91년 5.2%, 92년 0.9%로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2년 총매출액(532억9500 만원)이 총출하액(575억5400만원)보다 적은 이 유가 불충분하며, 만약 총 출하액이 정확했다면 동양화학의 수익현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또 90년부터 92년까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의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동양화학의 수익률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유리업계의 경상이익은 상당히 나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동양화학의 수익률 감소는 중국산 소다회 수입보다는 세계 경기하락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소다회 생산 가동률은 동양화학이 매년 미국산 소다회 약 4만톤을 들여오지만 았았더라도 가동률은 상당히 올라갔을 것이며, 중국산 소다회 수입가격이 91년까지 톤당 170~174달러 수준에서 92년 157달러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 이는 중국의 소다회 수출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해상운임이 급격히 하락, 91년 해상운임이 톤당 26달러에서 92년에 16달러로 하락한데 원인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12월초에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향후 3년간 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했으며, 12월27일경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게 됨으로써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판정여부가 일단락됐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중국산 소다회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매년 약 25만톤의 수입은 불가피한 실정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나 국익을 위해 가격이 싼 소다회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 부족분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공급원 개발과 수입시장의 경쟁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부과율은 이치에 맞지않는 결정이었으며, 이에따른 향후 파급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소다회 개요

소다회는 가성소다와 함께 알칼리부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다회는 무수탄산나트륨의 일반명칭으로 겉보기 비중 차이에 따라 중회와 경회로 나누며, 관련제품으로는 세탁소다, 1수화물, Sesquitan산소다 및 가성화회 등이 있다.

소다회의 주 용도로는 유리제조시 융점강화제, 비누 및 세제공업의 각종무기 및 유 기화학제품제조, 식품공업에서 중화제 및 첨가물, 섬유제조 및 제지공업 등 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다회 제조방법은 소금과 석회석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합성방식(합성소다회)과 자연에서 존재하는 소다회광물을 정제하는 천연방식(천 연소다회)이 있으며, 천연소다회방식이 제조원가면에서 유리하나 지정학적으로 부존자원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만 제조가 가능하므로 기타 국가는 합성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화학적인 성분은 동일하나 불순물중 NaCl함량이 합성소다회보다 천연소다회가 적으며, 물리적성질은 중회인 경우 합성소다회와 천연소다회가 동일하나 경회인 경우에는 천연소다회는 일반적으로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회를 사용하는 유리업체는 동일하게 사용하나 경회를 사용하는 세제업체등은 천연소다회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소다회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광물이나 용액을 사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합성소다회보다는 제조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회는 주로 유리업체에서 규사와 Mix-ing효과를 좋게하기 위해 사용하고 경회는 합성세제에 혼합제로 사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서로 호환성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공업적으로 수율 및 품질관계상 호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공정에 있어서 합성소다회 공정은 경회를 제조한 후 수혼 및 건조공정을 거쳐 중회를 생산하나 천연소다회 경우는 정제과정시 중회가 제조되므로 일반적으로 경회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경회제조가 가능하나 상업적인 생산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성 부분에서는 합성소다회중 중회보다 경회가 제조비용은 다소 저렴하나 경회는 포장비 및 물류비용이 중회보다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고시(합의내용)

재무부고시 제 1993-22호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약속제의 수락 및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취소

관세법 제10조 제9항에 의거, 중국산 소다회의 수출자인 중화하북진출구공사(재무 부고시 제 1993-13호 1.부과내용-가. 수출자 상의 중국화공진출구공사, 하북분공사와 동일 수출자임) 및 중국화공건설총공사의 별첨과 같은 약속제를 수락하며, 동 수출자가 수출하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서는 본 고시일로부터 재무부고시 제1993-13호 및 제 1993-20호에 의한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한다.

(별첨) 수출축소약속

중국화공건설총공사 및 중화하북진출구공사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과세부과요청 사건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6 제2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축소 약속을 제의합니다.

### 1.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수출자들이라는 용어는 중국화공건설총공사 및 중화하북진출구공사를 지칭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중국내에서 생산하는 소다회를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하는 약속시행일이란 1994년 1월1일을 의미한다.

### 2. 수출수량

(가) 수출자들은 대상물품의 대 한국 수출물량을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하기로 약속한다. 단 1994년 수출물량은 잠정조치실효일로부터 본 약속시행일 (1994.1.1)전까지의 수출물량을 포함한다.(1994년: 2만톤, 1995년: 2만톤, 1996년: 1만5000톤).

(나) 위 (가)항의 각 수출물량은 매년 3%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증감분만큼 다음해의 수출물량을 조정한다. 단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중국 수출자들의 대 한국 수출물량은 총 5만50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수출물량은 수출자들의 대 한국 수출물량을 합산하며, 대 한국 수출경로는 이 약속시행일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3. 적용범위

이 약속은 제1조에 의한 수출자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상기 수출자들 이외의 중국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본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확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4. 약속 회피 금지

수출자들은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또는 원산지국이 다른 대상 물품의 판매를 통해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5. 보고

(가) 수출자들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당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당해 분기중에 한국으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고객의 이름, 수량, 단위, 총 수출가격, 거래별 수출조건을 기재한 판매목록.

(나) 수출자들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당해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당해 반기중에 한국으로 판매한 대상물품의 운송비, 취급수수료 및 보험료의 명세서.

② 당해 반기중에 한국에 대한 대상물품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자들에게 발생한 수출비용의 명세서.

(다) 수출자들은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위 (가)항 및 (나)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 6.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들은 이 약속시행일 이후에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약속의 수정을 재협의할 수 있다.

### 7. 약속시행기간

이 약속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1996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단 제5조에 의한 1996년도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위 기간 종료후에도 유효하다.

### 8. 법령준수

수출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들은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게 하였다.

중화항공건설총공사

서명자 : 대리인 변호사

중화하북 진축구공사

서명자 : 대리인 변호사